

주일 예배 순서

- 사순절 제6주/종려주일, 고난주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빌립보서 2:5-11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55장(새 15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60번(새 131번)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 돌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그 결과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 없이 지켜 주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따를 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지라도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문임을 잊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한 흔적만이 남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마태복음 26:36-46 인도자
- 찬양(Anthem) 성가대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옵소서

- 성찬식(Communion) 281장(새 229장) 다함께
- 봉 헌(offering) 346장(새 211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510장(새 457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오늘 예배 중 성찬식이 있습니다.(성찬보좌: 박준영권사, 최은진권사)
3.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참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4.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중에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5. 오늘 친교 후 소망 속회로 모입니다.
6. 4월 말씀묵상집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제목>

-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며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백성공동체가 되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목사님, 장석순할머니, 허춘희권사님)

◆ 이 달의 속회 적용점

[믿음, 소망속] 고린도후서 7:1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닌 우리의 혼과 육을 아우르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구원은 반드시 왜곡된 신앙의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겉은 신자이지만 속사람(영)이 변화되지 않으면 생각(혼)이나 가치관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종교인이면서도 신앙인 인양 행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전인격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며 삽시다.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말씀묵상〉 마태복음 26:36-46

36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겔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시니 38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0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2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3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44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5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1.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겔세마네에 이를 때에 그 마음이 어땀하셨으며, 제자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습니까? (36-38절) 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습니까?
2.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드리셨던 기도는 무엇이며, 기도 후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39-46절) 나는 어떤 형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영적인 통로와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선물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그리고 많이 할수록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에 더욱 자신의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이 기도만큼 왜곡되고 오용되고 있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되고, 기도의 내용은 온통 자신의 탐심에 근거한 자기의 뜻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부르짖고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들이 이 세상 것에 관한 것들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특별히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아마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드린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간절한 호소를 드리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고난과 죽음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증 받으시고 예수님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가 됩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죄인 된 인간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시는 모습을 기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온전히 복종될 때 비로소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만이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추구하는 기도의 내용들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내 안에 정욕과 탐심, 세상의 유희와 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강한 영적 용사가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